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 로맨스물)' 드라마가 '대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성 시청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한 편의 웹드라마가 나왔다. 영화 등 콘텐츠 투자배급사 NEW가 3월31일 선보인 BL 웹드라마 '블루밍'이다. 영화과 학생들의 풋풋한 캠퍼스 로맨스를 그린 '블루밍'은 공개 직후 네이버 시리즈는 VOD 차트 1위에 등극했다. 서울 강남구 NEW 사옥에서 만난 황다슬(28) 감독과 주연 조혁준(32)은 이어지는 호평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황다슬 감독은 국내서 처음으로 BL드라마를 인기 대열에 올려놓고 'BL계 대모'로 떠올랐다. 사진제공 | NEW



신예 조혁준은 BL 드라마 '블루밍'을 20대 청년의 성장드라마로 솔직하게 다가갔다. 사진제공 | NEW

“BL물이 한류의 새 축”

황다슬 감독

“여성 캐릭터 활용법도 중요해 스킨십 위한 스킨십은 독이죠”

“BL물, 새로운 한류 콘텐츠”
황다슬 감독은 2020년 5월 선보인 국내 첫 웹드라마 '나의 시선의 머무는 곳'에 '부터 시즌2 제작까지 이어진 '나의 별에게'를 연출한 '한국 BL물의 선구자'이다. 한 우물만 판 덕에 두터운 팬층을 거느린 그는 “BL물의 불모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해 첫사랑을 못 있는 느낌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다”며 웃었다.

“지금은 BL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교군도 많아지고 큰 인기를 끈 작품도 많아져 이번에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특히 '블루밍'은 BL물이 지금처럼 주류 콘텐츠로 떠오르기 이전에 찍은 작품이어서 혹시 울드해 보이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도 했죠.”

그는 제작사의 제안으로 BL물 연출을 시작하게 됐다. 우정과 사랑 사이 미묘한 감정을 그린 장편영화를 준비하다 그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져

연출에 나섰다.

“BL은 로맨스물의 하위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편견을 깨부순 시도에 대한 응원과 있고요.”

“여성이 (주로)소비하는 콘텐츠”이니 만큼 두 남자 주인공만큼이나 여성 캐릭터 활용법도 중요하다고 그는 믿는다. “여성성을 완전히 생략”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성격의 여성을 등장”시킨 이유다.

흥미를 자아내기 위한 자극적인 장면은 경계하는 것 중 하나다. “스킨십을 위한 스킨십”은 BL물의 독이다. “실루엣으로만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이다.

“블루밍”에 이어 6월 '나의 별에게' 시즌2 공개를 앞둔 그는 자가복제를 우려해 차기작은 BL이 아닌 다른 장르의 작품을 준비 중이다. 그래도 BL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지지를 당부했다.

“케이(K) BL물이 한류의 새로운 축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BL물로 세계인에게 새로운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요. 또 BL물은 좋은 신예들을 선보이는 좋은 무대인 것 같아요. 더욱 많은 작품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BL물 거부감 없었죠”

주연 조혁준

“불완전한 두 청년의 성장 답아 결국은 사랑과 사람 이야기죠”

“결국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BL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죠”는 신예 조혁준은 캠퍼스 로맨스라는 생각으로 작품에 접근했다. 자신과 달리 감정 표현에 솔직한 동기(강은빈)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스무 살 대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과 사랑의 형태처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캠퍼스 로맨스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빠져드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기에 키스신이나 스킨십 장면도 어렵지 않았다. 함께 호흡을 맞춘 강은빈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낸 덕분”에 연기하는 내내 어색함도 없었다.

“먼저 반말을 잘 못 하는 편인데, 은빈이가 먼저 말을 편하게 하자고 해 광장

히 편해졌어요. 촬영이 없는 날에도 따로 연습실을 빌려 함께 연습했어요. 끝나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요. 저도, 은빈이도 첫 주연작이라 걱정이 컸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어요.”

지나치는 듯했던 말을 모두 귀담아들은 섬세한 강은빈에게 감동도 많이 받았다. 따뜻한 캐릭터 그대로였다. “함께 연습을 하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은빈이에게 울리듯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베개에 뿌리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필로우 미스트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죠.”

로맨스만큼이나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신경 썼다. “결말이나 상처가 있는 두 명의 불완전한 청년이 만나 서로를 보듬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연애에 무게를 두는 다른 BL물과 차별화했다. BL물이 쏟아지는 지금, '블루밍'을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이유이다.

“앞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답하려는 이야기를 잘 봐주시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독님의 장점이 잘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예능...트로트 스타들의 '이중생활'

김희재·정동원 나란히 드라마 출연
이찬원·박군은 예능 진행자로 변신

지난해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방송가를 수놓은 트로트 스타들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김희재, 정동원, 이찬원, 박군 등이 분업인 가수로 무대에 오르는 동시에 연기, 예능프로그램 진행 등을 병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희재와 정동원은 나란히 연기자로 나선다. 각각 23일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과 KT스튜디오지니가 제작한 '구필수는 없다'를 첫 드라마로 내놓는다. 김희재는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주인공 열혈 순경 진기주의 파트너를 연기한다. 귀신을 부리는 마술사 박해진과 진기주가 수사를 공조하는 과정에 얽히면서 톡톡 튀는 개성을 드러낼 전망이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씩씩하고 장난기 많은 캐릭터와 닮은 그는 촬영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동원은 40대 처진 집 사장 광도원과 20대 청년 사업가 윤두준의 우정을 그리는 '구



정동원

이찬원

필수는 없다'에서 래퍼를 꿈꾸는 중학생으로 등장한다. 주인공 광도원의 아들로 비중이 작지 않다. 올해 15세로 동갑내기 캐릭터를 연기한다. 연기 행보도 계속 이어간다. 최근 카카오TV 오리지널 시리즈 '쇼

름'도 촬영했다.

이찬원과 박군은 예능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찬원은 JTBC '토크왕 25시', MBN '뽀 투 더 그라운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 2TV '블루의 명곡' 진행자로도 합류했다. 신동엽, 전현무, 김숙 등 베테랑들과 호흡을 맞추며 감각을 쌓고 있다.

박군은 김성주와 함께 SBS '하우스 대역전'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채널A '강철부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평생 배필도 만났다. 2020년 SBS Fil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서 만난 가수 한영과 26일 결혼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병헌 감독, 스크린·안방극장 동시 공략

3년만의 신작 '드림' 하반기 선풍적
앞차 '최종병기...' 총감독도 맡아

재치 넘치는 유머의 '말맛'을 과시해온 이병헌 감독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동시 공략한다. 16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극한직업'과 마니아 시청자를 탄생시킨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을 연출한 만큼 신작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병헌 감독은 2019년 '극한직업' 이후

3년 만에 신작 '드림'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으로 알려졌다. 선수생활의 위기에 놓인 축구선수가 생전 처음 공을 잡아보는 노숙자들과 함께 홈리스 월드컵에 도전하는 내용을 그린다. 박서준이 주인공을, 아이유가 굶주린 축구 대표팀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방송국 PD 역을 맡는다.

당초 2020년 촬영하고 지난해 개봉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촬영이 어렵게 돼 일정



이병헌 감독

을 수정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달 헝가리로 캐이션을 시작하며 다시 작업 중이다.

OTT 앞차와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도 진두지휘한다.

상반기 공개하는 앞차 '최종병기 엘리스'의 총감독을 맡았다. 의문의 전학생인 킬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이 만나 범죄조직에 쫓기는 이야기를 그리는 하이틴 액션 로맨스물로, 단편영화 '내가 버린 여름'을 연출한 서상원 감독과 함께 대본을 썼다. 신예 박세완과 송건희가 주인공

으로 낙점됐고 김성오·김태훈 등도 가세한다.

앞차 박태훈 대표는 “과감한 시도와 참신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름 선보일 신하균·원진아 주연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유니콘'에도 합류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작품 전체의 톤과 방향을 지휘한다. 스타트업의 분투기를 담은 작품으로, 방송인 겸 작가 유병재와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썼던 인지혜 작가, '멜로가 체질'을 공동 연출한 김혜영 감독을 연출자로 내세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One pick 추천작



터키즈 온 더 블럭

이용진, 19금 토크도 쥐락펴락 매운맛 '터키즈' 유튜브서 인기

방송가에 '유퀴즈'가 있다면, 유튜브 세계에는 '터키즈'가 있다.

개그맨 이용진이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 '터키즈 온 더 블럭'이 독특한 개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콘텐츠는 방송인 유재석·조세호가 진행하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을 패러디한 토크쇼다. 이용진이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터키 아저씨'로 분장해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잔잔한 매력의 '유퀴즈'와 달리, '터키즈'는 극강의 '매운맛'을 선사한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맥락 없이 던지는 질문들이 웃음을 자아낸다. '19금 토크'도 자유롭게 등장한다. 이용진이 능청스러운 진행 실력으로 적정한 수위를 유지해 게스트도 부담을 내려놓고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이 참여한다.

이미 가수 씨열·화사·송민호,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 등 연예인부터 조나단·랄랄·풍자 등 스타 유튜버까지 다채로운 게스트가 다녀갔다. 스타들은 남다른 '가성비'에 만족하고 돌아간다. “촬영 시간이 짧기로 유명”하지만, 영상마다 300만 뷰를 훌쩍 넘기는 등 홍보효과가 만점이다. 그룹 NCT 드림이 출연한 최근 영상은 공개 이틀 만인 4일 127만 조회수를 얻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스릴러 영화 '앵커' 해외 14개국 선판매

천우희·신하균·이혜영이 주연한 스릴러 영화 '앵커'(감독 정지연, 제작 인사이트필름·어바웃필름)가 해외 14개국에 선판매됐다. 4일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따르면 20일 국내 개봉하는 '앵커'가 독일,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에 판매됐다. 28일에는 태국, 다음 달 13일 대만에서 개봉한다. '앵커'는 방송국 간판 앵커(천우희)가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며 직접 취재를 요청한 제보 전화를 받은 후 제보자의 집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트와이스, 日 도쿄돔 3회 공연 전석 매진

걸그룹 트와이스가 네 번째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본 도쿄돔 3회 공연을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시키며 폭발적인 현지 인기를 재입증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도쿄돔에서 열리는 공연은 23일과 24일 양일간 2회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5일 공연이 추가됐다. 트와이스는 2019년 3월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이라는 진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박소현 코로나 확진... '세상에 이런 일이' 휴식

방송인 박소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MC자리를 비운다. 4일 SBS에 따르면 5일 진행되는 녹화에 박소현 대신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한승연이 스페셜 MC로 참여한다. 박소현은 1998년 5월 21일 1회 방송부터 지금까지 1000회 이상 진행된 녹화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2017년 갈비뼈 부상 당시에도 녹화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4일 진행한 라디오 SBS '박소현의 러브게임'에는 박소현 대신 배우 한가인이 스페셜 DJ로 참여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